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언약을 전수하는 명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신 32:7)

외선부 가을 수련회

주제: 열방의 목전에서(사 52:10)
일시: 9월 28일(목)~29일(금)
장소: 충현 기도원

2023년, 제2차 학습, 세례식(성인) 안내

학습, 세례식: 10월 29일(주일), 찬양예배 시
교육일정: 10월 8일(주일) ~ 10월 22일(주일)
대상: 학습(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세례(학습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신청: 선교관 1층 사무국, 온라인 접수(QR코드), 교구
및 부서 담당 교역자
신청마감: 10월 8일(주일)까지
문의: 박동진 목사(010-4482-0043)
* 자세한 일정은 8면 참조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역사자료 전시회

장소: 충현교회 본당 1층(구. 코니카페)
내용: 교회 70년간의 역사를 담은 사진과 물품
주최: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준비 위원회
전시기간 중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벤트 관련 선물 증정도 있으
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추석 명절 가정예배 본지 4면 참조

경관조명 사진 컨테스트

기간: 10월 1일(주일)까지
제출 : 핸드폰 촬영으로 경관조명이 잘 드러난 사진(1인 1사진 응모)
방법 : 네이버폼(충현교회 경관 조명 사진컨테스트)에 링크 접속하여 제출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2023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교회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성경통독 '리딩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충현교회 성경통독
모델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였고, 한국교회에 교단을 초월하여
성경통독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에 확장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를 확인하는 자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더욱 깊은 성경통독으로 향하는 자리인
리딩지저스 컨퍼런스2023에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3. 10. 17. (화) 09:30 - 15:30 장소 충현교회

1부 사회 권혁민 교수 (리딩지저스 발행인)

오프닝
권혁민 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리딩지저스 사역의 의미와 가치
피터 릴백 총장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언약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조나단 김순 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사도행전의 끝맺음(행 28:30-31)에
나타난 그리스도 중심성
한규삼 담임목사 (충현교회)

성경과 성령: 주님과 밀착
권성수 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2부 사회 김은수 목사 (리딩지저스 미니스트리 공동대표)

그리스도 중심 묵상과 기도
강명옥 박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리딩지저스 소개와 현황
박동진 목사 (충현교회)

포럼
서울홍성교회 (서경철 담임목사)
강변교회 (이수환 담임목사)
대구삼덕교회 (강영룡 담임목사)

주최
충현교회 /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
리딩지저스 미니스트리

대상
충현교회 모든 성도

등록 및 신청 (점심제공)

온라인 : 홈페이지 및 QR코드 /
오프라인 : 각 교구 간사 또는
부서 담당 교역자

등록마감
10월 8일(주일)까지

문의
김승래 목사(010-5526-1324)
최병일 안수집사(010-7534-2952)



지난 주일(9월 17일) 설교 되새기기

위기는 참된 리더를 세운다

(사도행전 27:18-26)



사도행전 15장을 살펴보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통하여 거두게 된 큰 수확을 바탕으로 차후의 선교전략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선교방식의 표준이 확정된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행 15:39)”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소로 향하여 각각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두 개의 선교팀이 각각 사역하게 되었다는 점과 바나바를 돕던 마가도 후일 바울과 화해하고 그를 돕게 되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갈라선 후 바울은 약 35,000km를 다니며 열과 성을 다하여 사역했습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그가 향했던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바울은 선교여행을 마치고 도착했던 예루살렘에서 투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분량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21-28장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시기를 기록합니다. 이를 통하여 성경은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 아무런 방해가 없는 상태가 아님을 드러냅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전진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투옥되었던 2년은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행 21:30)” 바울은 유대인의 법을 심각하게 어겼다는 오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붙들렸는데, 성경의 “문이 닫혔다”라는 표현이 돌로 쳐 죽임을 뜻하기에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었어야 할 로마군대의 천부장이 개입하였습니다. 바울을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천부장은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였습니다. 40명의 유대인 젊은이들이 바울이 감옥 밖으로 나오면 죽이려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부장은 밤중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하여 바울을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도이자 로마의 총독이 있던 가이사랴로 이송시켰습니다. 그 곳 감옥으로 옮겨진 바울은, 2년 동안 총독이 바뀔 때마다 심문과 재판을 받으며 그 자리조차 전도와 복음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큰 풍랑에서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되는 길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와 항해에 대하여 전문가였던 뱃사람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풍랑임을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18-20절)” 살아남기 위하여 화물은 물론, 운항에 필요한 기구까지 버렸음에도 며칠 동안이나 흑암 가운데 머무르며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 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1-22절)” 배에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며 낙담하던 그 때,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안심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저 조금 놀라서 무서워하거나 당황하는 사람에게 ‘괜찮아’라고 다독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했던 전문가임에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절망하던 이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저는 사도 바울처럼 ‘안심하라’는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은 없지

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임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 때 그 평화를 붙들면, 대부분 안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3-24절)” 바울이 선포했던 ‘안심하라’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소명이 남아있었기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Flying Falling Catching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라는 책은 네덜란드 출신의 학자로 예일과 하버드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모두 내려놓고, 페루의 빈민가와 캐나다 토론토의 장애인 공동체 (데이 브레이크)를 섬기다 1996년에 소천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웬의 유고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 공중 곡예단과 교제하며 헨리 나우웬이 남긴 글을 휘트니 브라운이 완성한 책인데, 저는 왜 헨리 나우웬이 공중 곡예단과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함을 이해하기에 곡예단만큼 적절한 예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은 나는 듯(Flying) 하지만 어느 순간 떨어집니다(Falling). 바다 위를 걷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잠겨버리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 믿음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그 때, 공중 곡예단의 그네 곡예에서처럼, 떨어지는 우리를 잡아주는(Catching)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공에 몸을 날리는 것도 믿음이고, 떨어지는 순간 팔을 내미는 것도 믿음이며, 그 분께서 우리의 팔을 잡아주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안심하라’는 음성을 들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무서워하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던 바디매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안심하라’이기 때문입니다.

거침없는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바울이 풍랑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에게 선포했던 “안심하라”는 말씀은, ‘이제는 담대하라, 이제는 깨어나 무엇을 할지 더 열심히 준비하며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거침없는 복음의 전진은 많은 이들이 모여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하는 자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적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안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있다면 바로 그 곳이 복음이 거침없이 전진하는 현장입니다.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이길 소망합니다. 그저 토닥여 주며 괜찮다고 위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바울의 소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구원도 함께 선포하였듯,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담임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Crisis Builds True Leader

(Acts 27:18-26)

Rev. Kyu Sam Han

According to Acts 15, the leaders of the church in Jerusalem at that period discussed the subsequent missionary strategy on the basis of the great harvest reaped through the missionary trip by Paul and Barnabas. Before the joy of having made a firm decision about the standard of the missionary method had not yet disappeared, a sharp disagreement between Paul and Barnabas happened. "And there arose a sharp disagreement, so that they separated from each other. Barnabas took Mark with him and sailed away to Cyprus,(Acts 15:39)" The disagreement between Paul and Barnabas was derived from the difference in their points of view about Mark. Eventually, Barnabas took Mark and sailed for Cyprus, and Paul went to Tarsus with Silas, so they came to do missionary work separately. It was a regrettable thing at that time, but as a result, it could bear better fruits in that the two mission teams worked separately, and Mark, who helped Barnabas, reconciled with Paul and helped him later. After separating from Barnabas, Paul traveled about 35,000km to do missionary work with all enthusiasm and sincerity. Paul headed everywhere to Turkiye and Greece, Thessalonica, Philippi, Corinth and Ephesus, preaching the gospel, and establishing the church. After this, Paul was imprisoned in Jerusalem to which he headed after he had finished the missionary trip. Chapters 21-28, which make up about one-fourth of the total volume of Acts, record the period of Paul's imprisonment. Through this, the Bible reveals that 'the advance of the gospel without hindrance' is not the state of no disturbance. I hope you believe no matter what obstructions there are, the gospel advances, and that the advance of the gospel without hindrance is experienced in our lives. The two years when Paul was imprisoned was the time when God hid him. "Then all the city was stirred up, and the people ran together. They seized Paul and dragged him out of the temple, and at once the gates were shut.(Acts 21:30)" Owing to the misunderstanding that Paul breached the Jewish law seriously, he was caught in the temple of Jerusalem, and it was a very dangerous circumstance because the expression in the Bible "the gates were shut." signifies to be stoned to death. At that time, the commander of Roman troops, who had to be in the city of Caesarea, interfered. The commander, who judged Paul is not a dangerous person, rather helped him. It was because more than forty Jewish young men waited for Paul to come out of the prison to kill him. Eventually, the commander got ready two hundred soldiers, seventy horsemen and two hundred spearmen at night to take Paul Caesarea which was the capital city of Palestine and where the governor of Rome was. Paul, who was taken to the prison there, used the place of interrogation and trial as the opportunity to spread the gospel and evangelize for two years whenever the governor changed.

Even in a tempestuous wind,

On the way of being taken from Caesarea to Rome, Paul faced a tempestuous wind, called Euroclydon. The sailors who were experts in ships and navigation realized immediately it was the storm through which they were difficult to survive. "Since we were violently storm-tossed, they began the next day to jettison the cargo. And on the third day they threw the ship's tackle overboard with their own hands. When neither sun nor stars appeared for many days, and no small tempest lay on us, all hope of our being saved was at last abandoned.(Acts 27:18-20)". Even though they jettisoned the cargo as well as the ship's tackle necessary for navigation, they stayed in the darkness for several days and didn't eat properly. "Since they had been without food for a long time, Paul stood up among them and said, "Men,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and not have set sail from Crete and incurred this injury and loss. Yet now I urge you to take heart, for there will be no loss of life among you, but only of the ship.(vv. 21-22)" At the time when most of the people on the ship thought there was no possibility to survive, and were discouraged, Paul, who was in the status of a prisoner, proclaimed, "Do not be afraid." It was not the word meaning 'It's okay' to soothe someone who is sur-

prised to fear a little bit or embarrassed. Paul proclaimed the voice of God which was heard in his heart to those who were discouraged in front of the reality that human ability could not bear even though they were experts equipped with long experience and knowledge. I have never heard the voice 'Do not be afraid' directly like the Apostle Paul, but I have an experience that suddenly an amazing peace came to me while I was praying wholeheartedly. If I held on to the peace at that time, most matters of relief happened. I bless you will hear the voice of the Lord, 'Do not be afraid.'

Do not be afraid

"For this very night there stood before me an angel of the God to whom I belong and whom I worship, and he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And behold, God has granted you all those who sail with you.(vv. 23-24)" The voice, "Do not be afraid", which Paul proclaimed, was the word that God talked to the people who belonged to Him. Since Paul still had a calling to have to stand trial before Caesar, even those with Paul could be saved. Paul received the voice of God with faith. The book, "Flying Falling Catching" was a posthumous work by Henri Nouwen, a Dutch-born spiritual theologian, who taught at the Divinity Schools of Yale and Harvard before leaving academia to serve a community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L'Arche Daybreak) in Toronto, Canada, and a slum area in Peru, and died in 1996. This is the book Whitney Brown completed by continuing the writings Henri Nouwen left while he was close to a trapeze troupe before God called him, and I could realize immediately why Henri Nouwen had spent a long time with a trapeze troupe. It is because there is no proper illustration like a trapeze troupe to understand how to train and refine the faith. Our faith seems flying, however, falls at a certain moment. It's because the fragility that looks like walking on the sea but suddenly sinks is the attribute of our faith. However, the moment of falling, there is a person catching us just like the artistry of the swing of a trapeze troupe. Therefore, flying the body into the air is faith, stretching out hands at the moment of falling is faith, and trusting in and waiting for Him to catch our arms is also faith. I am confident that Jesus might have heard the voice "Do not be afraid" when he was nailed on the cross. It was because the very word that Jesus said to the disciples who were terrified at seeing Jesus walking on the lake, to the woman who was afraid after having touched the edge of Jesus stealthily, and to Bartimaeus who shouted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was "Do not be afraid".

For the advance of the gospel without hindrance

The word, "Do not be afraid." that Paul proclaimed to those who were dying in the middle of a tempestuous wind, had the meaning 'Be bold now. Now wake up and live your life preparing for what you have to do more enthusiastically'. The advance of the gospel without hindrance is not that lots of people gathered together, shouting Hallelujah, and staying in only the place of praising. No matter how small the number is, no matter how hard the situation is, if there is a word of Jesus "Do not be afraid.", that is the very field where the gospel is advancing without hindrance. The voice of the Lord 'Do not be afraid.' can be heard through the spirituality of belonging to God, serving God, and trusting in God. One step further, I hope you and I will be the spirituality possessors who can proclaim to the people of the world not to be afraid. Not the level of patting and soothing by just saying it's okay, I hope we will deliver the voice of salvation God gives. Just as an angel of the Lord said to Paul his calling and also proclaimed the salvation of the people with him,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we will be the living people of the gospel, who can deliver the voice of life to many people in difficulties.

가정예배

신앙고백	다	함	께	
찬 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함	께
말씀봉독	전도서 4:12	다	함	께
말씀선포	믿음, 소망, 사랑의 온가족	인	도	자
합심기도	다	함	께	
주기도문	다	함	께	

사랑하는 충현교회 온가족 여러분,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과 전도서가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을 통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집에서는 가족들이 거리를 두고, 명절에는 함께 모이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거리를 두어라, 모이지 말라'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어렵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힘을 합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모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를 말씀과 기도에 더욱 가까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몸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를 서로에게 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욱 가까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가족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온 가족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서로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가족에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세 겹줄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소망이 다르면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

다.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다르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게 될 것이고, 작은 상처가 아물지 않고 덧나서 더 큰 아픔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가족이 같은 비전과 꿈과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형제자매가, 더 나아가 친척들이 함께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실까요? 이러한 가정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함께 꿈과 비전을 나누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우리 가족에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사랑하시죠?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능력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오래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은 오늘 본문처럼 세 겹줄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쉽지 않지만, 함께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가족 여러분,

오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해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기다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용기를 내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나의 기도예 응답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임대영 목사(고등부 지도)



추석 가정예배 영상



2023 브릿지 가을 수련회: 성벽 재건 프로젝트

2023 브릿지 가을 수련회는 성벽 재건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인 전교인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공동체”로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2단계인 70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함께 동참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공동체”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지난 15일(금)~16일(토)에 충현 기도원에서 진행되었던 가을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은혜와 회복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브릿지 공동체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부흥회를 시작으로 3step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브릿지 공동체!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한 브릿지 공동체 가을 수련회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믿음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고, 뜨겁게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성벽을 온전한 믿음 안에서 건축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자세와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들을 준비해주신 목사님께 깊은 감사인사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 특강으로 섬겨주신 강민경 간사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통해 순원들 서로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특강이었습니다. 가을 수련회를 위해 밤낮으로 맘고생 몸고생한 브릿지의 주역 면려회와 순장님들, 늘 기도와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교회분들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준 모든 브릿지 공동체 순원님들께 축복과 감사인사 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단단한 믿음의 성벽 건축하는 브릿지 회원들이 되길 기도하며, 가을 수련회의 깊은 은혜를 사랑으로 흘려보냅니다!♡ 최유진 순장

아직은 여름이 머물러있는 가을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던 기도원으로 가는 길, 각자의 바쁜 일상 후에 모인 지체들을 맞아주는 찬양으로 은혜로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제 신앙과 공동체에 대한 고민, 망설임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브릿지 공동체에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뜨거운 기도와 맞잡은 손으로 함께 한 찬양으로 브릿지가 사랑으로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갈구하는 하나님이지만 세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저에게 이번 수련회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3주간의 성벽재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함께하는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 브릿지 형제 자매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벽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하나 되는 브릿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보현 자매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정말 많은 힘과 용기를 받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와서 제 조국이긴 하지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어색하고 약간은 마음의 부침도 있었던 시간에 주님과 교제 또한 멀어지고 있었는데(아마 그래서 부침이 더 심했겠죠)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왜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충현 새가족으로 브릿지 새가족으로 참여하여 어색할 수도 있었을 저를 세심히 챙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공동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던 시간이었음에 너무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한 공간에서 부대끼고, 적어도 1박은 해야 정도 들고 소속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공동체 소중함을 다시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공동체에 머무는 동안 제가 받은 섬김처럼 저도 순원으로서 섬김의 자리에 더욱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가족 순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브릿지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양윤정 자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이번에 당회서기로 부름을 받아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 충현의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교회설립 70주년 기념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70년을 넘어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 된 충현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최근 몽골에 어린이 사역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그 중 5천만원은 권사회에서 현금한 것입니다. 권사님 한분 한분이 매월 5천원 또는 1만원씩 회비를 낸 것 중의 일부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은퇴하고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적금을 부어 만기된 적잖은 금액을 선뜻 몽골 선교사역에 지명헌금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과부의 두 렵돈을 넣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역을 위해 자신의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로 구성된 예루살렘찬양대 초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성도님들이 본당 찬양대석 양쪽을 모두 채웠는데 지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악보를 외워야 하는지 보고 해도 되는지 묻지 마십시오. 무조건 외우십시오. 간식을 주는지 안 주는지 묻지 마십시오. 주시면 먹고 없으면 안 드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비교적 너무 풍족한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부서마다 교회학교마다 뽕뽕한 냉난방에 먹을 것이 넘치지는 않는지요. 이제는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부서별로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는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선교, 이웃사랑의 5대 목표 실천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또한 스스로 어느 정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애써 자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또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아니 더 나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입술로는 희생과 자기부인을 얘기하지만 성도님들은 교회에

서나 자신의 삶터에서 조금도 손해를 보려하지 않고, 입술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섬김을 얘기하지만 상대방을 대접하기보다 오히려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러한 모습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심장을 살피며 불꽃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으며,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5대 목표를 실천해가며 또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가 넘쳐나는 교회,
-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 하는 교회,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 겸손하여 자기보다남을 낮게 여기며 배려와 존중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
- 연약한 자와 병든 자를 손잡아 주고 주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 선교와 구제에 많은 지출을 하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교회,
- 1인 1봉사로 몸 된 교회를 능동적으로 함께 섬기며 가꾸는 교회,
- 다툼이나 허영이 없고 사실이 아닌 말로 현혹되지 않는 교회,
- 3중 세트(불평, 불만, 교만)가 사라진 교회,
-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교회,
-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교회,
- 그러면서도 정통 보수신앙을 유지하며 교회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충현다움”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교회

더욱이 요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신실한 말씀의 종으로 우리 충현교회에 보내주신 한규삼 담임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길 온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교회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한 협력과 겸손한 섬김,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전 당회서기 이상석 장로님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회서기 양효민 장로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역사자료 전시회 EVENTS

이벤트 기간: 9.1(금) ~ 10.1(주일)

이벤트 하나. 인증샷 보내고 선물 받기

역사자료 전시회에 참여하시고, 참여 인증샷 및 소감을 보내주시면 100명을 선정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1. 70주년 역사자료 전시회에 참여한다.
2. 포토존 또는 전시물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다.
3. QR코드로 설문 참여 후 연락처, 소감, 인증샷 제출을 한다.



이벤트 둘. 색칠하기 참여하고 간식 받기

역사자료 전시회 색칠하기 이벤트 참여하면 간식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1. 전시장(코니카페)내 마련된 색칠하기 장소에서 교회 그림 색칠하기에 참여한다.
2. 색칠하기 담당 봉사자에게 그림을 제출하고 맛있는 간식을 선물로 받는다.

* 색칠하기 운영시간: 이벤트 기간 중 주일 12:30 ~ 15:00



